

제 144호 강의 마무리하기 1

학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강의 마무리하기에 대하여 쓰고자 합니다. 이 주제로 연말까지 계속 쓰게 될 것입니다.

학기말에는 강의하기가 몹시 힘이 듭니다. 아직도 전달해야 하는 내용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어떨 때는 할 말이 더 없는데도 강의 시간이 일주일이나 남아 있어 시간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암담하기도 합니다.

방학이 어서 빨리 시작되어 쉬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학생들 역시 방학동안 하고 싶은 것과 (특히 졸업생들은) 앞으로 해야 할 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나머지 수업이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쓸려 한 학기 내내 쌓은 공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학기 도중 수업이 평탄치 못했더라도 만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가 좋으면 과거마저 좋아 보이듯이 강의 역시 피날레가 좋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았다고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는 영화를 볼 적에 다소 지루하게 느꼈더라도 멋지고 의미심장한 끝 장면으로 인하여 영화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어 좋게 평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강의도 끝마무리가 무척 중요합니다.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수업에 포함하면 좋을만한 몇 가지 요소를 제시합니다.

1. 강의 내용을 "새롭게" 정돈한다

마지막 주까지 새로운 강의 내용을 다루면 역효과를 내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주에는 한 학기 동안 다룬 내용을 복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복습할 경우 강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차례대로 점검하되 중요한 부분을 골라서 강조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이런 방식의 복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레퍼토리에 다른 방식으로 복습하는 방법을 포함시켜보십시오. 예를 들어 중요한 개념들을 강의에서 소개된 순서대로 점검하는 대신 핵심 개념을 중심에 놓고 이차적 개념들은 바깥쪽으로 가지를 쳐 나가는 개념지도를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 강의는 강물같이 흘러내려 갑니다. 지난 번 강의 내용은 오늘 강의 내용으로 이어지고, 오늘 강의 내용은 다음 강의 내용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또 그래야 학생들이 쉽게 따라 오겠지요.) 그러므로 강의 내용은 순차적(일차원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샷길로 빠지거나 갈래를 쳐내려 가더라도 다시 한줄기 흐름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강의 내용 자체는 일차원적이지 않습니다.

여러 개념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고 다차원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복습에는 개념지도를 그려서 내용의 연관성을 색다르게 보여주는 것이 무척 효과적입니다. (개념지도는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한 눈으로 보여줍니다. 새시대 교수법 63호)

가능하다면 학생들에게 각자 개념지도를 그리게 해서 잘 된 샘플 몇 개를 골라 모든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잔소리 코너>

대다수 교수님들께서는 강의를 잘 시작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계십니다. 사람을 대할 적에 첫인상이 무척 중요하듯이 강의 역시 첫 수업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나머지 강의 효과가 상당히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수업 시작하기에 대한 이론과 테크닉은 책과 논문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기말에 강의를 잘 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토론과 정보는 별로 없습니다. 이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기말에 강의를 잘 마무리하는 것은 학기초에 잘 시작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 조벽, 2001